

희망세상 (2006년 7월호 / 46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7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5·18기념재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제 4회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캠프가 5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동안 광주에서 진행되었다.

5·18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소중한 경험

서울 장승중학교 3학년 정주리

저는 서울에 있는 <평화의 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주리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장승중학교이고 나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저는 여기 쉼터에 온 지 2주가 다 됐어요. 온지 며칠 안 되서 윤순녀 대표님께서 광주 5·18민중항쟁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하셔서 이번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캠프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곳에 왜 가지? 아~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캠프에 가는 날은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19일(금) 저녁 거실에 동그랗게 앉아서 5·18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5·18민중항쟁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으라고 해서 저는 광주, 피, 평화, 인권 등 많은 것을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국사책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함께 느끼고 한

다는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일(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체 티셔츠를 입고 들뜬 마음으로 시청 앞에 관광버스를 타러갔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광주로 떠나는데 마음이 기쁘고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광주'.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민주마당 '오~ 아름다워라', 인권마당 '나는 인권나라에 왔다' 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으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시위 체험을 했을 때, 탈 때는 즐거웠지만 군인복장을 하고 총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실제인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체험이지만 실제로 겪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확 떠올랐습니다. 성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할 때,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간 사람 중에 세 명 정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화도 배워보고, 한마디 쓰기 등 많은 프로그램에 참

여했습니다. 주먹밥 체험, 통일 도미노, 5월 상황재현극 등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낀 것도 많았답니다. 저는 버스시위 체험을 할 때가 제일 무섭고 떨렸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록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석, 넘버원코리아, 나비효과 등 많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함께 열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광팔찌를 지원해 주셔서 팔에 차고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숙소(적십자수련원)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각자 방에 가서 이불을 깔고 있는데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배고팠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간식을 다 먹고 언니들 것 까지도 다 뺏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간식을 먹고 이야기하며 놀다가 밤 12시 40분쯤에 꿈나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씻고 적십자수련원 식당에서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8시 30분에 망월동에 있는 5·18국립묘지에 갔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햇볕도 많이 들고 막 떠들고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

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자는 다 벗고 MP3플레이어는 귀에서 다 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위해 설명을 해주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 주시는데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5·18민중항쟁이 1980년에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공수부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진 전시관에는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사진과 함께 글로 적어 두어서 유심히 읽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진과 글을 읽을 때,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서 차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묵념을 할 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5·18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고 내년에 있을 캠프도 또 가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5·18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